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 SCRIPTORY

로마서 40 주차 (롬 16:12~16:27)

(2018년 6월 10일 - 2018년 6월 16일)

(제5권 40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40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8 년 6 월 10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로마교회 성도들—트루파이나, 트루포사, 페르시스 (주일)

### 오늘의 본문 (롬 16:12)

- <sup>12</sup> ἀσπιάσαθε Τρύφαιναν καὶ Τρυφῶσαν (트루파이나와 트루포사를 문안하라)  
τὰς κοπιώσας ἐν κυρίῳ.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  
ἀσπιάσαθε Περούδα τὴν ἀγαπητήν, (사랑하는 페르시스를 문안하라)  
ἣτις πολλὰ ἐκοπίασεν ἐν κυρίῳ. (주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한)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트루파이나, 트루포사, 그리고 페르시스는 모두 여성이며 노예다. 당시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성에 대해 매우 관대했던 사도 바울조차 그의 서신 곳곳에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비난의 소지를 남겨 놓았을 정도니 말이다. 그런데 하물며 여자 노예들은 어떠했겠는가? 이들은 여자이면서도 노예였으니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들이었음에 분명하다. 그런데도 바울은 여성 노예의 신분으로 로마 교회에서 봉사를 한 세 자매들의 이름을 그의 편지에 새겨 놓았다.

트루파이나는 노예가 된 그리스 여인으로 그 이름은 ‘양증맞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한편 트루포사는 ‘감미로운,’ ‘섹시한’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노예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여자들 중에도 그런 이름이 발견된다. 당시에는 남자 노예뿐만 아니라 여자 노예도 주인으로부터 해방되어 시민이 될 수 있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시민권을 가진 여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남자와 혼인할 수도 있었으며 남편의 신분을 따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었다. 한편, 트루파이나와 트루포사를 함께 언급했다고 해서 그들이 실제로 자매 관계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아마도 그들은 같은 주인 밑에서 함께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페르시스는 페르시아 출신의 여성 노예라는 것을 그녀의 이름으로 쉽게 알 수 있다. 그녀는 페르시아 출신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지역에도 많이 살고 있었으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바울이 특별히 그녀를 ‘사랑하는’ 페르시스라고 부른 것을 보면 그녀와 바울과 일면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바울이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으므로 아마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도중에 그녀를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녀는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다.

바울은 이 세 자매들에게 공히 동사 ‘코피아오’(κοπιῶ)를 사용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면 동사 ‘코피아오’(κοπιῶ)는 단순히 일하는 정도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매우 열정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뜻하는데 특히 바울은 이들이 교회 내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했으며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나 전도자들을 위해 노력했다고 치하하고 있다.

성경은 참으로 묘하다. 현대적인 시각으로 봐도 파격적이라 생각되는 내용도 많다. 로마 교회에는 바울이 언급한 이들 말고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그 중엔 당시에 유력자들도 더러 섞여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여성이면서 노예 신분으로 교회에 나와 봉사를 한 세 명의 이름을 나란히 언급하고 있다. 당시 처럼 신분 구별이 엄격한 사회에서 성경은 불경스럽다 못해 수치스워서 차라리 기록하지 말았으면 하는 이야기들까지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 특히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는 네 명의 특별한 여인의 이름과 출신을 보면 참으로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 1:1)라는 말로 시작된다. 그 족보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성의 이름은 다말이다.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훗날 그녀가 담나에서 시아버지 유다를 만나서 그와 잠자리를 한 것을 보면 담나 출신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 당시 담나는 가나안 땅이었으므로 다말은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그녀가 약속의 자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출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창녀로 변장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낳은 쌍둥이 중 하나인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 그 뿐인가? 가나안에 살던 여인이면서 창녀였던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그 유명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청상과부이자 모압 여인인 룻을 아내로 맞이들인다. 참고로 성경에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신 23:3 참조). 여호와의 총회는 구약적 관점으로는 이스라엘, 신약적인 관점으로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모압 여인, 그것도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이방 여인 룻이 버젓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는데 그녀의 첫 남편인 우리야는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헷 족속 출신이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절대 그곳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 것과 이스라엘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있다. (신 7:34 참조). 그런데 밧세바는 이미 계울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과 결혼했다. 그런 그녀가 왕비가 되고 다윗을 이어 왕의 자리에 오른 솔로몬을 낳게 된다. 이처럼 출신부터가 미천한 네 명의 이방 여인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른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만약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면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야 할까? 아흔 살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 마음 고생이 심했던 사라는 어떤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몸종에게 멸시를 받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또 리브가는 어떤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태어나 이삭과 결혼하여 야곱을 낳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무리를 해가며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 여인이 아닌가? 어디 그뿐인가? 연달아 세 명의 아들을 낳고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는 하나님을 찬양한 레아도 이름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여인들의 이름은 없고 오히려 입에 올리기에조차 수치스러운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자격없는 사람들을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미 그 속에 새겨져있다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족보 그 자체가 교회의 모습인 것이다.

바울은 여자이면서 노예인 세 명의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에게 문안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했다. 물론 그들이 노예 신분이라서 그렇게 수고한 것이 아니다. 자기들처럼 하찮고 미미한 존재들을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긴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봉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교회에서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감사함이 넘치면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테고 또한 그 이름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을 것이다.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교회를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수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 로마 교회 성도들—루포와 그의 어머니 (월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6:13)

<sup>13</sup> ἀσπάσαιθε Ροῦφρον (루포를 문안하라)  
τὸν ἐκλεκτὸν ἐν κυρίῳ (주 안에서 선택된)  
καὶ τὴν μητέρα αὐτοῦ καὶ ἐμοῦ. (그리고 그와 나의 어머니를 [문안하라])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루포는 로마 이름이다. 그의 이름에는 색깔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뜻은 ‘붉은 머리’다. 루포라는 이름은 노예와 자유인 둘 모두에게 쓰였기 때문에 루포가 자유인이었는지 노예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당시 문헌의 기록상 루포라는 이름 중 자유인 비중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바울이 언급한 루포도 자유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루포라는 이름은 단지 로마서에서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 마가복음 15 장에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다. 마가복음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sup>16</sup>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 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sup>17</sup>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sup>18</sup>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sup>19</sup>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sup>20</sup>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sup>21</sup>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sup>22</sup> 예수를 끌고 끌고다라 하는 곳(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sup>23</sup>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막 15:16-23).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에 속한 도시로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속했었다. 구레네의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에 왔다가 졸지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성경은 로마 병사들이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유독 마가복음만 그의 아들들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하던 당시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마가가 시몬의 아들 루포를 로마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라 올 당시 어린 아이였던 루포는 자기가 겪었던 당시의 상황을 마가에게 얘기해 주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모든 것은 추정일 뿐 성경 어느 곳에서도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라는 보장은 없다. 가끔 로마서의 루포를 마가복음의 루포라고 확정하여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둘이 동일인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바울은 루포를 소개하면서 ‘톤 에클렉톤 엔 쿠리오’(τὸν ἐκλεκτὸν ἐν κυρίῳ: 주 안에서 선택된 자)로 소개한다. 사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주 안에 속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 보내 편지에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sup>2</sup>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딤후 1:1-2상).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ἐκλεκτός)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수님이나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단어로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

“<sup>17</sup> 그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sup>18</sup>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sup>19</sup>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sup>20</sup>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어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막 13:17-20).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이처럼 에클렉토스는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를 일컫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6장에서 루포에게만 특별히 ‘주 안에서 선택된 자’라고 말한 것은 다른 성도들과는 달리 그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사실 에클렉토스 (ἐκλεκτός)는 당시 군대에서 사용하던 용어 중 하나였다. 수많은 병사들 중에서 지휘관이 특별히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지목하여 불러내어 특별한 사명을 부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종교적으로 특별한 재능을 발휘할 때 사용되기도 했다. 그리고 보면 루포는 로마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루포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나의 어머니’라고 말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바울이 아시아나 아가야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루포의 어머니가 친어머니처럼 특별하게 바울을 대해 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바울이 복음 전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처럼 반겨주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을 차려주지 않았을까 싶다. 거한 밥상은 아니더라도 갖지은 흰밥에 정성스레 끓인 된장국과 정갈한 반찬을 올려 놓았을 지도 모른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집을 떠나 살아야 했다. 그런 그에게 루포의 어머니는 사역의 피로를 씻어 줄 고향집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녀에게 ‘나의 어머니’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루포의 어머니에게서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어머니란 교회 내에 권사나 장로 등 어떤 특정한 직분을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지 않다.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하면서도 힘들고 지칠 때면 누구나 기댈 수 있는 큰 나무와도 같은 존재들을 뜻한다. 어머니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남들을 부리는 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든 모든 사람들을 품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존재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에게서 그런 것을 느꼈다. 가끔은 농담도 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응석을 부려도 괜찮은 사람이 어머니 아닌가? 사실 교회는 그 자체로 어머니 같아야 한다.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품어주는 곳이어야 한다. 늘 냉정하고 목표지향적인 인물일 것 같은 바울의 마음에 진한 고향의 향기를 느끼게 해준 루포의 어머니 같은 어르신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나요?

## 로마 교회 성도들—그의 형제와 자매들 (화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6:14~16)

- <sup>14</sup> ἀσπάσασθε Ἀσύγκριτον, Φλέγοντα, Ἑρμῖν, Πατροβᾶν, Ἑρμῖαν καὶ τοὺς σὺν αὐτοῖς ἀδελφούς.  
(이수르크리토스, 플레곤, 파트로바스, 헤르마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형제들을 문안하라)
- <sup>15</sup> ἀσπάσασθε Φιλόλογον καὶ Ἰουλίαν, Νηρέα καὶ τὴν ἀδελφὴν αὐτοῦ,  
(필로로고스와 율리아, 네레우스와 그의 자매들을 문안하라)  
καὶ Ὀλυμπᾶν καὶ τοὺς σὺν αὐτοῖς πάντας ἁγίους. (올림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을 [문안하라])
- <sup>16</sup> ἀσπάσασθε ἀλλήλους ἐν φιλήματι ἁγίῳ.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ἀσπάζονται ὑμᾶς αἱ ἐκκλησίαι πᾶσαι τοῦ Χριστοῦ.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너희를 문안한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많은 이름들을 나열한다.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들었을 뿐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 것 같다. 바울이 특별히 그들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사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언급한 여덟 명과 그와 함께 한 형제들, 그의 자매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한 명이라도 더 그 이름을 기록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이들 외에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 성도의 이름으로 문안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로마 교회는 오늘날의 대형 교회들 처럼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다. 고작해야 20여 명 남짓 모이는 가정 교회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었다. 따라서 성도들 개개인의 출신이나 배경을 알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이들이 노예 신분이었는지 아니면 자유인이었는지를 분간해 내는 것도 쉬운 작업이 아니다.

필자는 이 중에서 특별히 두 명의 이름에 관해 얘기하고 싶다. 첫 인물은 파트로바스다. 그는 이방인으로 로마로 건너가서 그곳에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보통의 경우 같은 이름이라도 라틴 이름은 끝이 ‘-ius’로 끝나는데 그는 그리스식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다. 물론 그가 자유인이었는지 아니면 노예 신분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한 가정 교회를 이끄는 리더의 위치에 있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변증이기도 하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여야 하는 권면의 말씀도 많다. 따라서 바울이 이방인 가정 교회 지도자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편지하는 목적을 극대화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또 다른 한 명은 율리아다. 율리아는 바울이 14절과 15절에서 언급한 인물 중에 유일한 여성이다. 율리아는 당시 로마 여성들에게 매우 흔한 이름 중 하나였다. 중요한 사실은 그 이름이 대부분 자유롭지 못한 신분을 지닌 여인들에게 많이 쓰였고, 대개의 경우 ‘율리안’이라는 귀족 집안에 속한 여성 노예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렇다고 율리아라는 이름이 모두 노예 신분이었다고 확정할 수도 없다. 가끔은 귀족의 이름 중에서도 율리아라는 이름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가 노예였는지 아니면 자유인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사도 바울이 필로로고스와 함께 그녀를 언급했다는 점인데 필로로고스는 그리스 출신의 로마 시민으로 로마 토박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필로로고스와 율리아를 ‘카이’(και)라는 접속사로 묶었다. 이러한 사실로 볼때 둘은 부부 사이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물론 오누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둘이 매우 특별한 관계였음은 틀림이 없다. 특별한 관계가 아닌 경우 ‘카이’(και)를 사용하여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이방인이면서도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여 하나의 가정 교회의 지

도자가 되었다는 점은 시사할 만하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자기와 함께 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14절에서 언급된 이름들은 각 가정 교회의 리더들로 추정된다. 그들의 이름으로 추정컨대 이들이 이끌던 가정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이방인, 유대인, 중, 자유자, 여자, 남자, 높은 지위의 사람들,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 당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사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독특한 모임의 성격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 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다. 훗날 마르쿠스 당시 켈수스 (Celsus)라는 학자는 독특한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신랄한 비판의 글을 쓰기도 했다.

“개인 가정에는 양털과 옷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 그리고 돌팔이들, 즉 무식하고 교양없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가장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어린 아이들과 무지한 여인들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 ...따라서 네가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스승과 아버지를 떠나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따라 여자들이 모이는 곳이나 돌팔이 장사치의 가게나 무두질장이에게 가라. 거기서 완전한 생활의 지혜를 배울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을 기만하는 방법이다.” (Origen, *Against Celsus* 3.55) (후토스 L. 곤잘레스저 (엄성옥 역), *초대교회사*(서울: 은성출판사, 2012), 89-80에서 재인용).

당시 교회는 주위 사람들로 부터 매우 심각한 비난과 편견에 사로잡혀 많은 오해를 받았다. 대부분 기독교를 폄훼하기 위한 헛소문들이었지만 성도들이 소수에 불과했기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었다. 당시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조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엄격한 신분제 사회인 로마 제국에서 교회에만 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 부르고, 유별해야 할 남 녀가 함께 모여 애찬을 나누고 심지어 서로 입맞춤까지 하는 것은 당시 문화로서는 용납되기 어렵고 조롱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 한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했다.

“...기독교인들은 서로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으며 많은 신자들이 배우자에게 이 호칭을 사용했다. 사람들은 이 사실에 기초를 두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신자들이 비밀리에 먹고 마시며, 방탕하기까지 해 불을 끈 후에 근친상간도 마다하지 않는 혼음을 벌인다고 생각했다.” (후토스 L. 곤잘레스저 (엄성옥 역), *초대교회사*(서울: 은성출판사, 2012), 88).

이를 기준으로 볼때 당시 가정을 오픈하여 가정 교회를 꾸려가는 일은 웬만한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꺼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든지 흑색선전(마타도어)이 횡횡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수모를 견뎌내며 복음을 지켰고 그것을 전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 형제, 자매라는 말을 ‘집사님’이라는 말로 대체한지 오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 성도라는 이름으로 로마에 있는 가정 교회를 격려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한 로마 교회의 교인들처럼 아름다운 가정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풍요와 자유의 쓰나미에 밀려 성경의 아름다운 전통마저 쓸려가지는 않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위의 비난이나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위축되거나 또는 사역을 포기한 적은 없었나요? 당신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나요?



## 거짓 가르침에 주의하라 (수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6:17~20)

- <sup>17</sup> Παρακαλῶ δὲ ὑμᾶς, ἀδελφοί,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형제들아)  
σκοπεῖν (주의하라)  
τοὺς τὸς διχοστασίας καὶ (분당을 만드는 자들과)  
τὰ σκάνδαλα παρὰ τὴν διδασχὴν ἣν ὑμεῖς ἐμάθετε ποιοῦντας,  
(너희가 배운 바 가르침을 꺼리는 것으로 만드는 자들을)  
καὶ ἐκκλίνετε ἀπ' αὐτῶν· (그들로부터 떠나라)
- <sup>18</sup> οἱ γὰρ τοιοῦτοι τῷ κυρίῳ ἡμῶν Χριστῷ οὐ (그들은 우리의 주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고)  
δουλεύουσιν (종노릇 한다)  
ἀλλὰ τῇ ἑαυτῶν κοιλίᾳ, (그들의 배로)  
καὶ διὰ τῆς χρηστολογίας καὶ εὐλογίας (부드럽고 축복하는 말로)  
ἐξασπατῶσιν τὰς καρδίας τῶν ἀκάκων.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 <sup>19</sup> ἡ γὰρ ὑμῶν ὑπακοὴ εἰς πάντας ἀφίκετο·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ἐφ' ὑμῖν οὖν χαίρω, (그러므로 너희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  
θέλω δὲ ὑμᾶς σοφοῦς εἶναι εἰς τὸ ἀγαθόν, (나는 너희가 선에 지혜롭기를 원한다)  
ἀκεραίους δὲ εἰς τὸ κακόν. (악에 순진하기를)
- <sup>20</sup> ὁ δὲ θεὸς τῆς εἰρήνης συντρίψει τὸν σατανᾶν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부수실 것이다)  
ὑπὸ τοὺς πόδας ὑμῶν ἐν τάχει. (속히 너희 발 아래)  
'Ἡ χάρις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μεθ' ὑμῶν.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너희에게 있기를)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권면했다. 흔히 그렇게 하고 나면 편지가 마무리 되는 것이 정상인데 바울은 갑자기 다른 주제를 들고 나온다. 소위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다. 거짓 가르침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고 진리를 왜곡하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

로마 교회가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당을 짓는 일이다.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인지를 사람들의 면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해왔다. 로마 교회는 로마라는 도시가 지닌 특수성 때문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자유지뿐 아니라 노예들도 있었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각자 출신이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모였다고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분당의 문제가 생겨난다. 서로의 신분이나 인종적 배경에 따라 끼리끼리 모이거나 서로에 대해 담을 쌓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들의 행동 양식이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그러한 일들이 고착화된다면 교회도 결국 또 다른 사회 집단의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된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어 뜨리는 일도 하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다. 바울을 강력한 어조로 서로 당을 짓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사실 바울이 당 짓는 것을 경고한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앞서 2 장에서도 그 심각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나님께서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sup>7</sup>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sup>8</sup>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롬 2:6-8).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사람 사는 사회는 다 그런 거라고 말할 수도 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 그러나 교회는 반대로 그것을 타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공동체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당짓는 문제를 언급했다.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끼리끼리 모이고 그룹 간에 담을 쌓는 일은 교회 공동체의 최대의 적이다.

그 다음으로 교회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복음을 왜곡하고 그것을 거리끼는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상살이가 불편해진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습관에 젖어 있으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송사한다. 세상에서 잘 나서 자랑할 것이 있어도 그것을 내세우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세상에서 낮은 지위에 있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실패로 힘들어할 때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낮아지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실패한 사람들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는 곳이 아니라 늘 사랑으로 격려하고 받아주는 곳이다. 물론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 여전히 신분이나 출신을 따지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따진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논리가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그것을 조장하게 되면 그 교회는 진리와 무관하게 된다. 세상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교회를 좀 먹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그것들로부터 피하라고 권면한다.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필요가 없고 아예 그런 생각을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 죄를 지으면 스스로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예수님의 은혜는 뒷전이다. 교회가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비리새인들처럼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다. 자기 죄에 자기가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라고 가르친다. 특별히 경제적인 풍요로움이야 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친다. 번영이 가장 큰 화두고 목표다. 그들은 교언영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세상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체하고 있다. 이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초대 교회 당시부터 뿌리 깊게 이어져 오는 문제다. 세상의 교훈이 기독교의 복음보다 훨씬 더 근사해 보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선에게 지혜롭고 악에게 순진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나님의 진리다. 악은 세상의 가르침들이다. 그것이 제 아무리 멋지고 그럴싸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악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사탄이라 한다. 사탄은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때론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때론 합리적인 이성으로, 심지어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시키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진리를 대체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천착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안전하게 각자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교회 내에서 당을 짓거나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당신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 바울의 동역자들 (1) (목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6:21~23)

- <sup>21</sup> Ἀσπάζεταιμαι ὑμᾶς Τιμόθεος ὁ συνεργός μου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너희를 문안한다)  
καὶ Λούκιος καὶ Ἰάσων καὶ Σωσίπατρος οἱ συγγενεῖς μου. (나의 친척 루키오스, 아손, 소시파트로스가)
- <sup>22</sup> ἀσπάζομαι ὑμᾶς ἐγὼ Τέρτιος (나 테르티오스가 너희를 문안한다)  
ὁ γράμματος τὴν ἐπιστολὴν ἐν κυρίῳ. (주 안에서 이 편지를 적고 있는)
- <sup>23</sup> ἀσπάζεταιμαι ὑμᾶς Γάϊος (가이오가 너희를 문안한다)  
ὁ ξένος μου καὶ ὅλης τῆς ἐκκλησίας. (나와 온 교회의 집 주인 (가정 교회를 내어준)  
ἀσπάζεταιμαι ὑμᾶς Ἔραστος (에라스토스가 너희를 문안한다)  
ὁ οἰκονόμος τῆς πόλεως (시 재정관인)  
καὶ Κούαρτος ὁ ἀδελφός (그 형제 코우아르토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편지의 마지막에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다. 대개의 경우 개인적으로 마무리 인사를 하거나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인삿말로 두리뭉실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로마서에서는 자신과 동역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그들이 함께 문안하고 있음을 밝힌다. 물론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 후서에서는 좀더 다른 시각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디모데후서의 일부를 읽어보기로 한다.

ㄴ

“<sup>10</sup>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sup>11</sup> 누기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중략)...<sup>14</sup>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중략)...<sup>19</sup>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sup>20</sup>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sup>21</sup>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딤후 4:10-21).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후서 4장에 언급된 이 내용을 읽고 있노라면 공연히 마음이 딱딱해진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그의 곁을 떠난 사람들과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편지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지만 미련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울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단지 떠나기만 한 게 아니라 도리어 바울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있다. 적극적으로 바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말이다. 하지만 바울은 19절 이후부터는 자신과 끝까지 함께 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와 그의 집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그와 끝까지 함께 했다. 감옥에 갇혀 사형 선고를 받고 일생 중 가장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바울의 곁에 끝까지 함께 해 주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동역이 되는 셈이다.

다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동역자 중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디모데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서 뭘래야 뭘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다.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디모데는 평생을 바울과 함께 했다. 그는 바울의 수족과도 같은 사람이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끔찍하게 아꼈는지는 그의 진술을 통

해 알 수 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 두 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두 번의 편지 모두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딤후 1:2, 딤후 1:2참조). 그도 그럴 것이 디모데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 하면서까지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디모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설득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돌에 맞아 실신 상태가 될 정도로 위험을 무릅쓰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후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와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도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 (상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14장을 참고). 그때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에 합류하게 된다.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 사역에 합류하는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sup>1</sup>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로 부친은 헬라인이라 <sup>2</sup>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sup>3</sup>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줄 다 알아러라”(행 16:1-3).

이렇게 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디모데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한결같이 바울의 걸을 지켰으며, 복음의 아버지인 바울을 닮아 일생을 복음에 헌신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인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써나갈 때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 추억하면서 디모데 또한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했다.

“<sup>3</sup>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sup>4</sup>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sup>5</sup>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중략)... <sup>7</sup>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sup>8</sup>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1:3-8).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와 헬라, 로마 등지에 순회 전도를 했고(롬 16:21)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놓이기도 했다(히 13:23 참조). 디모데는 운명처럼 만난 바울과 함께 사역했고, 그래서인지 그 삶도 바울을 닮았다. 그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하나님 걸으로 갔다는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하는 대목을 보면 역시 바울답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5).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겨진 이유다. 디모데는 바울이 당부한 대로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에 이어 디모데가 전한 복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신실한 동역자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디모데를 맨 처음에 놓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스스로를 돌아 보라. 나는 누구의 동역자인가?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믿고 의지할 만한 동역자들이 곁에 있습니까?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당신은 그들을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있나요?

## 바울의 동역자들 (2) (금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6:21~23)

- <sup>21</sup> Ἀσπάζεταιται ὑμᾶς Τιμόθεος ὁ συνεργός μου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너희를 문안한다)  
καὶ Λούκιος καὶ Ἰάσων καὶ Σωσίπατρος οἱ συγγενεῖς μου. (나의 친척 루기오스, 야손, 소시파트로스가)
- <sup>22</sup> ἀσπάζομαι ὑμᾶς ἐγὼ Τέρτιος (나 테르티오스가 너희를 문안한다)  
ὁ γράψας τὴν ἐπιστολὴν ἐν κυρίῳ. (주안에서 이 편지를 적고 있는)
- <sup>23</sup> ἀσπάζεταιται ὑμᾶς Γάιος (가이오가 너희를 문안한다)  
ὁ ξένος μου καὶ ὅλης τῆς ἐκκλησίας. (나와 온 교회의 집 주인 (가정 교회를 내어준)  
ἀσπάζεταιται ὑμᾶς Ἔραστος (에라스토스가 너희를 문안한다)  
ὁ οἰκονόμος τῆς πόλεως (시 재정관인)  
καὶ Κούαρτος ὁ ἀδελφός (그 형제 코우아르토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의 동역자 루기오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로 추정된다. 그는 일찌기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다운 교회였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은 곳이다. 당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끈 사람들에 대해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sup>22</sup>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sup>23</sup>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sup>24</sup>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sup>25</sup>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sup>26</sup>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 11:22-26).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행 13:1).

안디옥은 바울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한 첫 번째 교회다. 그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이방인 선교를 위한 바울의 삶이 시작되었다. 루기오는 처음부터 바울을 알고 있었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다. 그렇다면 루기오도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과 함께 했다는 말이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되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한 시기가 주후 47년경이고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가 주후 57년경이므로 약 10년의 세월 동안 루기오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

야손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핵심 인물이다.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야손이 그와 동일인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야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는 동안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 주었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구금되기도 했다. 사도행전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sup>4</sup>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좇으나 <sup>5</sup>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 내려고 찾았으나 <sup>6</sup>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sup>7</sup> 아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sup>8</sup>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sup>9</sup> 아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행 17:49).

한편, 소시파트로스는 베뢰아 사람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을 함께 한 사람이다 (행20:4). 그에 대한 다른 일화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리 베뢰아 사람들은 매우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행17:11). 소시파트로스도 그 당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인물로 추정된다.

테르티오스는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구술하고 그것을 테르티오스가 받아 적는 방법으로 쓰였다. 그는 구술하는 바울의 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정작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것이 못내 섭섭(?)했나보다. 소시파트로스까지 이름이 나오자 그새를 참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적어 놓았다. 당시에는 파피루스에 글을 기록했을 텐데 한 번 기록하면 지울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그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아마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기 전 내용을 점검하는 도중 이 부분에 이르러 만면의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싶다.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집을 내어 준 인물이다. 그가 자신의 집을 고린도에 있는 교회 전체에 내어 주었는지 아니면 순회 전도자들을 위한 일종의 게스트 하우스로 내어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에게 숙식을 제공해 준 사람 중 하나였다. 한편 가이오는 마케도니아 출신 가이오 (행19:29), 더베 사람 가이오(행20:4) 등이 있는데 지금 언급하는 가이오와는 동일인이 아니다. 고린도 가이오는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인물이다 (고전1:14). 그만큼 바울과는 매우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인물이었다.

에라스토스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고린도 시의 재정관이었는데 실제로 고린도에 에라스토스라는 인물이 시 재산 관리인으로 복무했다는 사실이 사료에서 발견된다. 그의 이름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나타나는데 그는 고린도 시의 재정관이면서도 복음을 위해 바울과 동행했을 뿐 아니라 전도 여행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sup>21</sup>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sup>22</sup>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행 19:21-22).

바울은 전도 사역을 혼자서 하지 않았다. 이름 없이 삶을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이 빛을 발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상이다. 복음은 릴레이 경주의 바통과도 같아서 아직은 그 누구도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해주어야 하고 그것을 받아든 사람은 또 다시 씩없이 내달려야 한다. 그리고 그 바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손에서 내려 놓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자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의 바통을 들고 열심히 달리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바울과 함께 경주를 완주한 이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자. 그리고 우리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복음의 선한 경주에 나서자.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복음의 바통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 마지막 인사 (토요일)

### 오늘의 본문 (롬 16:25~27)

- <sup>25</sup> [Τῷ δὲ δυναμένῳ ὑμᾶς στηρίζω κατὰ τὸ εὐαγγέλιόν μου καὶ τὸ κήρυγμα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따라 너희를 능력으로 세우고)  
κατὰ ἀποκάλυψιν μυστηρίου (비밀의 계시를 따라)  
χρόνοις αἰωνίοις σεσημημένου, (영원 전부터 침묵해왔던)
- <sup>26</sup> φανερωθέντος δὲ νῦν (그러나 지금은 드러난)  
διὰ τε γραφῶν προφητικῶν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καὶ ἐπιταγῆν τοῦ αἰωνίου θεοῦ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εἰς ὑπακοὴν πίστεως (믿음의 순종을 위해)  
εἰς πάντα τὰ ἔθνη (모든 민족들 안으로)  
γνωρισθέντος, (알려진)
- <sup>27</sup> μόνῳ σοφῷ θεῷ, (오직 지혜의 하나님)  
διὰ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ὧ ἡ δόξα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 ἀμήν.] (그 영광이 영원하시길, 아멘)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위대한 편지의 마지막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한다. 편지는 통상적으로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런데 로마서는 마치 이제 막 편지를 시작하는 것처럼 위대한 찬양으로 마무리한다. 로마서는 구원의 클라이막스로 시작해서 구원의 클라이막스로 마무리된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의 비밀을 매우 치밀한 논리로 설명해왔다. 알다시피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그 누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 드러났을 뿐이다.

바울의 위대한 찬양시의 키워드를 따라가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정교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첫째로 그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유양겔리온(εὐαγγέλιόν)과 케리그마(κήρυγμα)다. 케리그마를 선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누구도 복음의 비밀을 열 수도 선포할 수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복음을 완성하고 선포하실 수 있다. 예수님의 케리그마는 매우 짧지만 간결했다. 그가 십자가 상에서 선포한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케리그마다. 그의 케리그마는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다. 무엇을 어떻게 다 이루었다는 말인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외친 그 소리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지성소로부터 폭포수처럼 흘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른 것이다. 인간은 그 진리를 전할 뿐이다. 그 소식이 유양겔리온, 즉 복음이다. 죽음은 패배요 최종적 승복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복음이 만들어지고 궁극적 승리가 만들어졌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는 자신의 삶을 그 비밀을 전하는데 바쳤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역설했다.

“<sup>26</sup>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음으로 감취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sup>27</sup>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골 1:26-27).

찬양시의 두 번째 키워드는 계시다. 드러남이다. 감추어졌던 것이 밝히 드러나 그 실체가 보이는 것이다. 골로새서 1 장 26 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복음은 처음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열쇠가 없으면 절대 풀리지 않는 비밀이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한 청년을 통해 성전의 비밀, 화목 제사의 비밀, 율법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로마서에서 고스란히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미미한 민족이 손바닥 만한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 거대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해 온 이유도 바로 복음의 비밀을 열기 위한 것이었다. 선지자들의 예언들, 율법의 명령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고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안에서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유앙겔리온과 케리그마는 이제 믿음의 순종을 위해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졌다. ‘알려진 것’이 세 번째 키워드다. 복음은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정리했을 뿐이다. 그런데 드러난 비밀은 이제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의 손에 쥐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려한 방법으로 그 비밀을 전하기로 하셨다.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의 발과 입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신 것이다. 바울은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sup>18</sup>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려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sup>19</sup> 기록된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sup>20</sup>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sup>21</sup>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려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18-21).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잘 나서가 아니다. 바울이 누구보다 뛰어난 언변을 갖고 있었거나 그가 누구보다 논리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그의 손에 쥐어 주었고, 그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온 삶을 바쳤다. 그것이 바울의 삶 전부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얻어낼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과정은 바로 복음 전파에 있다. 복음은 선포될 때 능력을 지닌다. 바울은 위대한 편지 로마서를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마무리한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바울에게 엄청난 빛을 졌다. 그가 피를 토하며 전한 이 복음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복적 신앙에서 벗어나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어떻게 타인에게 넘겨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그러한가? 그렇다면 당신은 복음이 주는 능력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복음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나요?